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8월 13일(일) 총 3매	
담당부서 복지서비스과	담 당 자	• 자립서비스팀장 박향은 ☎440-1546 • 담 당 자 서현미 ☎440-1547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청년과 중장년에도 돌봄서비스 … 복지부 공모 선정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선정 … 하반기부터 연수구, 부평구 시범 실시 -

-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 등 제공 -

인천시가 그간 돌봄 사각지대였던 청년과 중장년에게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2차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올 하반기부터 연수구와 부평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가족돌봄 청년), 그리고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돌봄필요 중장년)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 아동을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가족돌봄 청년과 돌봄필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없어 돌봄 사각

지대가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노인, 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청년과 중장년까지 확대하는 일상돌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번 공모를 실시했다.

인천시는 13~64세까지의 가족돌봄 청년과 돌봄필요 중장년들에게도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촘촘한 돌봄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집으로 직접 방문해 식사 보조, 가사 등을 제공하는 재가 돌봄·가사서비스와 식사·영양 관리와 병원 동행 서비스 등과 같은 특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면 된다.

연수구와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가족관계 단절, 질병, 사회적 고립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참고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족돌봄청년 및 돌봄필요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

Ⅰ. 사업기간 : `23. 8. ~ 12.

Ⅱ.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 공모모델 : **광역 모델**

○ 공모참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평구

○ 총사업비 : **222,000천 원**(국비 155,400, 시비 36,600, 구비 30,000)

○ 서비스내용 : 기본서비스(1) + 특화서비스(2)

서비스 대상	종류	서비스명	서비스 가격(월)	서비스 내용
가족돌봄청년 (13세 이상 ~ 39세 이하) 돌봄필요중장년 (40세 이상 ~ 64세 이하)	기본	재가 돌봄·가사	192,000~1,272,000원	제공인력이 집으로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긴급돌봄 등 탄력적으로 제공
	특화	식사·영양관리	175,000~237,500원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168,000~228,000원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 또는 돌봄대상가족의 이동 및 동행 보조를 통한 병원 수납 등 지원

* 서비스 가격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 지원기관(사업) 안내 : ‘23. 8. 16.

○ 심사위원회 개최(제공기관 지정 관련) : ‘23. 8. 말

○ 보조금 교부 : ‘23. 8. 말